

# 美 갈비 수입돼도 소 나이 제한 유지

### OIE 평가 힘입은 美 “전면개방” 파상공세 정부 “빠 허용하되 30개월 미만” 고수할 듯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 이제 우리나라는 2003년 이전처럼 소의 나이(월령)나 부위에 관계없이 모든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 내 검역 전문가들은 24일 대체로 이 같은 관측에 동의하지 않았다. 현재 정부의 입장과 국내 여론 등으로 미뤄볼 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관련 제한을 한꺼번에 모두 풀어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얘기다.

◇美 “쇠고기 수입 제한 모두 없애야”=미국은 이번 OIE 총회에서 확정된 ‘Controlled risk(통제된 광우병 위험)’ 등급을 앞세워 앞으로 수 주안에 새로운 수입 위생조건 협의를 요청할 것이 확실시된다. 작년 1월 맺은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만’이라는 제한을 없애고 OIE 등급에 걸맞은 수입 조건을 새로 적용, 소의 나이에 관계없이 갈비 등뼈까지 모두 수입하라는 주장이다.

현행 OIE 규정에 따르면 ‘Controlled risk’ 등급 국가에서 생산된 쇠고기는 일정 조건에 따라 특정광우병 위험물질(SRM)만 제거하면 원칙적으로 교역 과정에서 연령이나 부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0개월 미만, 뼈 포함’ 시나리오 유력=그러나 이 같은 미국 측의 요

청을 우리가 아무런 이의 없이 전적으로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미국 등 다른 나라로부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개정하거나 새로 맺자는 요구를 받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수입국의 권리보장 8단계의 ‘수입 위험 분석(import risk analysis)’ 절차를 밟아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부위 제한을 없애 뼈 수입을 허용하고, 미국은 현행 ‘30개월 미만’ 월령 제한을 유지하자는 우리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선에서 절충이 이뤄지는 시나리오가

장 유력하다. 우리 정부가 미국 측 관심의 초점인 갈비 수출 길을 터주는 대신, 국민의 광우병 관련 불안 등을 고려해 현재 광우병의 상징적 가이드라인으로 통용되는 ‘30개월 미만’ 나이 제한을 끝까지 고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농림부는 이미 미국 측의 전면 공세에 대비, 나름대로 방어 논리를 쌓아가고 있다. 지난달 미국에 대한 OIE의 잠정 등급 판정 보고서를 검토한 뒤 이력추적제가 안전하지 않다는 점, SRM을 폐기하지 않고 비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하고 있어 교차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 OIE에 회신했고 이번 총회에서도 같은 논리를 거론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청을 우리가 아무런 이의 없이 전적으로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미국 등 다른 나라로부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개정하거나 새로 맺자는 요구를 받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수입국의 권리보장 8단계의 ‘수입 위험 분석(import risk analysis)’ 절차를 밟아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부위 제한을 없애 뼈 수입을 허용하고, 미국은 현행 ‘30개월 미만’ 월령 제한을 유지하자는 우리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선에서 절충이 이뤄지는 시나리오가

## 일하는 여성과 결혼하면 결혼생활 오래 지속된다

집밖에서 일하는 여성과 결혼하면 가사만 하는 여성과 결혼하는 것보다 결혼 기간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 연구팀이 밝혔다.

이 대학 사회학자 스테이시 로저스 연구팀은 전국적으로 대표성이 있는 1천쌍의 결혼한 커플들을 대상으로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연구한 결과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일하는 부인들이 이혼을 증가시킨다는 기존 관념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로저스 연구팀은 돈을 버는 사람이자 주부인 여성과의 결혼을 통해 남편과 부인은 결정 권한, 가사, 육아 임무 등을 더 공평하게 나눌 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 결과를 토대로 미국의 남편들은 부인들이 일을 하고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좋게 평가하며 가족들보다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결론 지었다. /스테이시 로저스=연합뉴스



멸종 위기 야생 자이언트 판다 중국 쓰촨성 청두의 자이언트 판다 사육소에서 24일 판다 새끼들이 나무에 기어오르고 있다. 멸종위기종인 야생 자이언트 판다는 중국에만 1천600마리가 살고 있으며 베이징올림픽의 마스코트이기도 하다. /로이터=연합뉴스

## “美産 쇠고기 차별하면 WTO 제소하겠다”

### 보커스 美 상원 재무위원장

맥스 보커스 미 상원 재무위원장은 23일 국제수역사무국(OIE)가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한국 등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재개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美 해군 이란 톱 밀서 대규모 위력시위 미 해군이 중동에서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호와 니미츠호 등이 이끄는 함모전단과 해군-해병대원 1만7천명을 동원, 23일 이란 앞 페르시아만에서 대규모 위력시위를 했다. 함모 2대가 보유한 160여대의 전투기는 공중 훈련을 실시했고 함모전단은 잠수함과 수뢰 설치 등을 훈련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보커스 위원장은 이날 오전 미 상원에서 가진 ‘OIE 결정 기념 축하 쇠고기 파티’에서 “OIE가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판정했기 때문에 건강 기준을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거부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어떤 나라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차별을 하면 WTO에 제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커스 위원장은 “WTO가 이들 국가들이 WTO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합의문이 상원에 제출되기 전에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시장을 완전 개방하지 않으면 FTA에 반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석영 주미한국대사관 경제공사는 “오는 28일 한국 정부가 (OIE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 美·中 경제대화 ‘달라진 중국 위상’ 재확인

### 금융서비스 개방·환경협력 성과... 反中 정서 해소 미흡

22일과 23일 이틀간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2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미국은 중국의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과 에너지 환경협력 강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지만 최대현안이었던 위안화 절상문제에서는 만족스런 구체적인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화를 놓고 미국 내에서는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의 원인이 환율문제를 해법을 찾지 못해

반중정서를 해소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은 또 중국 국내은행의 외국인 자본을 상당 조정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중국은 미국에 증권사 진입 장벽 제거, 외국인행 린민비(인민폐) 거래, 보험사들의 시장 접근 확대, 민간항공기 운항횟수 증가 허용 등을 통해 최대의 미국의 체면을 세워주려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워싱턴=연합뉴스

그리고 현재 1조2천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과시라도 하듯이 이번 대화를 전후해 중국 기업대표단들은 200억달러 이상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중국은 환율문제와 지적재산권보호를 둘러싼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에 대해 정치적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 미국의 입장에 끌려가지만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워싱턴=연합뉴스

## 美, 北 탄도미사일 겨냥 또 MD 요격실험

### 의회 예산삭감·동유럽 미사일기지 설치 논란속 진행

미국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과 같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요격하는 이른바 MD(미사일방어) 요격실험을 실시한다.

미국은 이날 아침 알래스카 코디엑섬에서 표적 탄도미사일을 캘리포니아 항해 발사한 뒤 위성과 레이더 추적을 통해 채 20분도 안돼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지상배치 요격미사일(GBI)을 발사, 태평양 상공에서 이를 격추할 예정이다.

실험은 지상에서 100마일(160km), 해안에서 수백마일씩 떨어진 상공에

서 요격미사일이 고속으로 날아가 표적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인터넷서널 해럴드 트리브이 23일 보도했다.

앞서 미군은 태평양 해상의 실험지역 일대를 향해하거나 비행하는 선박과 항공기 운전자들에게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경보령을 발송했다.

이번 실험은 지난해 9월 1일 처음으로 MD 시스템을 풀 가동한 상태에서 목표물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로 가정해놓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에 성공한 이후 두번째로 실시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워싱턴=연합뉴스



## 자이툰 부대 오중위 유해 어제 국내 도착... 부검 착수

지난 19일 이라크 아르빌의 자이툰 부대 영내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오모(27) 중위의 유해가 24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오 중위의 유해는 이날 오후 4시10

분께 유족, 국방부조사본부 수사팀 등과 함께 아랍에미리트 항공 EK322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다.

오 중위의 유해는 인천공항 도착 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임시

안치됐으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유족들의 동의 하에 부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 수사를 위해 지난 21일 자이툰부대에 도착했던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팀은 현지에서 현장감식을 실시하고 부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연합뉴스

# 사람교사 공채안내

**영양교사 교수진 특별초빙강좌**

**2008년도 사람공채 모집안내**

**사람학교 수급계획에 따른 공채**

지금(올해) 바로 최적기입니다

**“전 과목”**

2009년부터 모집요강 변경예정

**선택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① 과목별, 수업실기, 면접 각학교 채용규정에 맞게 지도함

② 교육방법: 개인별면접, 직접강의, 동영상강의, 특별자료제공

③ 특별 영양교사 합격의 지름길(전국 유일 강의)

**교육학+전공(교육방법을 가르쳐줌)**

**주관: 전국교육신문사**

**교육정보연수원**

**광주지원 TEL.062)511-6359**

**H.P.017-631-4467**

**서울지원 TEL.02)3664-5263**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이란 감동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술입니다. 마술을 통하여 어린이에게는 꿈과 아이유 향상을, 성인에게는 개인의 자기자랑 및 취미생활로 활용하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은 웃음을 잃는 사람에게 용기와 꿈과 희망을 주는 데 목적이 있으며, 본 무료교육 프로그램은 마술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사회봉사차원에서 실시하는 무료강좌 프로그램입니다.

※ 모/집/대/상 ※

- 유치원, 초·중등교사로서 수업에 활용하실분
- 봉사활동 및 취미로 배우시려는 주부 및 어르신
- 마술에 관심있는 초·중·고등생 및 일반인
- 소극적인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응용
- 비즈니스를 위한 영업전략에 활용하실분
- 초·중등생 게임중독치료 및 발표력 향상
- 초·중등 특기적성 마술교사로 활동하실 분(취업추천)

**무료 초·중등 어린이 마술특강 개설**

마술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아이유 향상 및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EQ(감성)지수도 높여준다. 특히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활용할 수 있다.

★ 교육기간 : 주1회 8주 2개월

★ 교육비 : 무료(마술도구비 별도, 개인소장)

★ 교육장소 : 롯데백화점점 제일B/D 3층

★ 접수방법 : 선착순 20명 전화 예약 접수(개인교습)

○신청한 1일 마술교실체험 유치원, 초·중등학년, 태권도도장, 각·예능학원, ○각종행사, 마술 출장공연, 어린이 관련행사, 동문화, 교회행사, 아우회, ○어린 행사라도 마술사가 신비하고 재미있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매직&매직 아카데미 ☎(062)526-2500**

### 제1회 국가공인자격증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 취업 가능...

도로교통사고감정사란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정황, 경합, 경찰, 군 헌병 등 공무원직업 기관이나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 일반 교통관련기업체, 시설감정사 등으로 업무영역이 매우 넓어, 매년 수 천명 이상의 수요가 예상되며 전문직은 2-5년 이내에 최소한 8,000명~40,000명 이상으로 예측됨에 따라 신규 고등직종에 대해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경찰청 주관으로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 동안 교통사고조사는 교통경찰관의 전담사항이었으나, 이번 특별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외국처럼 분방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의견을 받아 조사하고, 조사자료는 재판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확실한 법적공신력을 부여하였다.

미국 등 OECD가입 선진국들은 이미 제도가 정착되어 조사전문가에 의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결정적으로 뒤바꾸게 하거나 사고원인에 영향을 주어 고액의 대행수수료는 물론 전문가로서 사회적 명성까지 한순간에 획득하여 고소득 전문직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

시행령의 발표에 따르면 「도로교

통사고감정사」의 주요 진출분야로는 도로교통사고 관련 검찰, 경찰, 법원, 군 헌병 등 공무원직업 기관이나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 일반 교통관련기업체, 시설감정사 등으로 업무영역이 매우 넓어, 매년 수 천명 이상의 수요가 예상되며 전문직은 2-5년 이내에 최소한 8,000명~40,000명 이상으로 예측됨에 따라 신규 고등직종에 대해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경찰청 주관으로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 동안 교통사고조사는 교통경찰관의 전담사항이었으나, 이번 특별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외국처럼 분방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의견을 받아 조사하고, 조사자료는 재판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확실한 법적공신력을 부여하였다.

미국 등 OECD가입 선진국들은 이미 제도가 정착되어 조사전문가에 의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결정적으로 뒤바꾸게 하거나 사고원인에 영향을 주어 고액의 대행수수료는 물론 전문가로서 사회적 명성까지 한순간에 획득하여 고소득 전문직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

시행령의 발표에 따르면 「도로교

통사고감정사」의 주요 진출분야로는 도로교통사고 관련 검찰, 경찰, 법원, 군 헌병 등 공무원직업 기관이나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 일반 교통관련기업체, 시설감정사 등으로 업무영역이 매우 넓어, 매년 수 천명 이상의 수요가 예상되며 전문직은 2-5년 이내에 최소한 8,000명~40,000명 이상으로 예측됨에 따라 신규 고등직종에 대해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경찰청 주관으로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 동안 교통사고조사는 교통경찰관의 전담사항이었으나, 이번 특별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외국처럼 분방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의견을 받아 조사하고, 조사자료는 재판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확실한 법적공신력을 부여하였다.

미국 등 OECD가입 선진국들은 이미 제도가 정착되어 조사전문가에 의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결정적으로 뒤바꾸게 하거나 사고원인에 영향을 주어 고액의 대행수수료는 물론 전문가로서 사회적 명성까지 한순간에 획득하여 고소득 전문직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

시행령의 발표에 따르면 「도로교

통사고감정사」의 주요 진출분야로는 도로교통사고 관련 검찰, 경찰, 법원, 군 헌병 등 공무원직업 기관이나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 일반 교통관련기업체, 시설감정사 등으로 업무영역이 매우 넓어, 매년 수 천명 이상의 수요가 예상되며 전문직은 2-5년 이내에 최소한 8,000명~40,000명 이상으로 예측됨에 따라 신규 고등직종에 대해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경찰청 주관으로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 동안 교통사고조사는 교통경찰관의 전담사항이었으나, 이번 특별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외국처럼 분방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의견을 받아 조사하고, 조사자료는 재판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확실한 법적공신력을 부여하였다.

미국 등 OECD가입 선진국들은 이미 제도가 정착되어 조사전문가에 의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결정적으로 뒤바꾸게 하거나 사고원인에 영향을 주어 고액의 대행수수료는 물론 전문가로서 사회적 명성까지 한순간에 획득하여 고소득 전문직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

시행령의 발표에 따르면 「도로교

통사고감정사」의 주요 진출분야로는 도로교통사고 관련 검찰, 경찰, 법원, 군 헌병 등 공무원직업 기관이나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 일반 교통관련기업체, 시설감정사 등으로 업무영역이 매우 넓어, 매년 수 천명 이상의 수요가 예상되며 전문직은 2-5년 이내에 최소한 8,000명~40,000명 이상으로 예측됨에 따라 신규 고등직종에 대해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경찰청 주관으로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 동안 교통사고조사는 교통경찰관의 전담사항이었으나, 이번 특별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외국처럼 분방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의견을 받아 조사하고, 조사자료는 재판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확실한 법적공신력을 부여하였다.

미국 등 OECD가입 선진국들은 이미 제도가 정착되어 조사전문가에 의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결정적으로 뒤바꾸게 하거나 사고원인에 영향을 주어 고액의 대행수수료는 물론 전문가로서 사회적 명성까지 한순간에 획득하여 고소득 전문직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

시행령의 발표에 따르면 「도로교

통사고감정사」의 주요 진출분야로는 도로교통사고 관련 검찰, 경찰, 법원, 군 헌병 등 공무원직업 기관이나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 일반 교통관련기업체, 시설감정사 등으로 업무영역이 매우 넓어, 매년 수 천명 이상의 수요가 예상되며 전문직은 2-5년 이내에 최소한 8,000명~40,000명 이상으로 예측됨에 따라 신규 고등직종에 대해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경찰청 주관으로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 동안 교통사고조사는 교통경찰관의 전담사항이었으나, 이번 특별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외국처럼 분방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의견을 받아 조사하고, 조사자료는 재판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확실한 법적공신력을 부여하였다.

미국 등 OECD가입 선진국들은 이미 제도가 정착되어 조사전문가에 의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결정적으로 뒤바꾸게 하거나 사고원인에 영향을 주어 고액의 대행수수료는 물론 전문가로서 사회적 명성까지 한순간에 획득하여 고소득 전문직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

시행령의 발표에 따르면 「도로교

통사고감정사」의 주요 진출분야로는 도로교통사고 관련 검찰, 경찰, 법원, 군 헌병 등 공무원직업 기관이나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 일반 교통관련기업체, 시설감정사 등으로 업무영역이 매우 넓어, 매년 수 천명 이상의 수요가 예상되며 전문직은 2-5년 이내에 최소한 8,000명~40,000명 이상으로 예측됨에 따라 신규 고등직종에 대해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경찰청 주관으로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 동안 교통사고조사는 교통경찰관의 전담사항이었으나, 이번 특별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외국처럼 분방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의견을 받아 조사하고, 조사자료는 재판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확실한 법적공신력을 부여하였다.

미국 등 OECD가입 선진국들은 이미 제도가 정착되어 조사전문가에 의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결정적으로 뒤바꾸게 하거나 사고원인에 영향을 주어 고액의 대행수수료는 물론 전문가로서 사회적 명성까지 한순간에 획득하여 고소득 전문직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

시행령의 발표에 따르면 「도로교

통사고감정사」의 주요 진출분야로는 도로교통사고 관련 검찰, 경찰, 법원, 군 헌병 등 공무원직업 기관이나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 일반 교통관련기업체, 시설감정사 등으로 업무영역이 매우 넓어, 매년 수 천명 이상의 수요가 예상되며 전문직은 2-5년 이내에 최소한 8,000명~40,000명 이상으로 예측됨에 따라 신규 고등직종에 대해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경찰청 주관으로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 동안 교통사고조사는 교통경찰관의 전담사항이었으나, 이번 특별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외국처럼 분방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의견을 받아 조사하고, 조사자료는 재판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확실한 법적공신력을 부여하였다.

미국 등 OECD가입 선진국들은 이미 제도가 정착되어 조사전문가에 의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결정적으로 뒤바꾸게 하거나 사고원인에 영향을 주어 고액의 대행수수료는 물론 전문가로서 사회적 명성까지 한순간에 획득하여 고소득 전문직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

시행령의 발표에 따르면 「도로교

통사고감정사」의 주요 진출분야로는 도로교통사고 관련 검찰, 경찰, 법원, 군 헌병 등 공무원직업 기관이나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 일반 교통관련기업체, 시설감정사 등으로 업무영역이 매우 넓어, 매년 수 천명 이상의 수요가 예상되며 전문직은 2-5년 이내에 최소한 8,000명~40,000명 이상으로 예측됨에 따라 신규 고등직종에 대해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경찰청 주관으로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 동안 교통사고조사는 교통경찰관의 전담사항이었으나, 이번 특별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외국처럼 분방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의견을 받아 조사하고, 조사자료는 재판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확실한 법적공신력을 부여하였다.

미국 등 OECD가입 선진국들은 이미 제도가 정착되어 조사전문가에 의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결정적으로 뒤바꾸게 하거나 사고원인에 영향을 주어 고액의 대행수수료는 물론 전문가로서 사회적 명성까지 한순간에 획득하여 고소득 전문직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

시행령의 발표에 따르면 「도로교

통사고감정사」의 주요 진출분야로는 도로교통사고 관련 검찰, 경찰, 법원, 군 헌병 등 공무원직업 기관이나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 일반 교통관련기업체, 시설감정사 등으로 업무영역이 매우 넓어, 매년 수 천명 이상의 수요가 예상되며 전문직은 2-5년 이내에 최소한 8,000명~40,000명 이상으로 예측됨에 따라 신규 고등직종에 대해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경찰청 주관으로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 동안 교통사고조사는 교통경찰관의 전담사항이었으나, 이번 특별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외국처럼 분방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의견을 받아 조사하고, 조사자료는 재판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확실한 법적공신력을 부여하였다.

미국 등 OECD가입 선진국들은 이미 제도가 정착되어 조사전문가에 의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결정적으로 뒤바꾸게 하거나 사고원인에 영향을 주어 고액의 대행수수료는 물론 전문가로서 사회적 명성까지 한순간에 획득하여 고소득 전문직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

시행령의 발표에 따르면 「도로교

통사고감정사」의 주요 진출분야로는 도로교통사고 관련 검찰, 경찰, 법원, 군 헌병 등 공무원직업 기관이나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 일반 교통관련기업체, 시설감정사 등으로 업무영역이 매우 넓어, 매년 수 천명 이상의 수요가 예상되며 전문직은 2-5년 이내에 최소한 8,000명~40,000명 이상으로 예측됨에 따라 신규 고등직종에 대해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경찰청 주관으로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 동안 교통사고조사는 교통경찰관의 전담사항이었으나, 이번 특별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외국처럼 분방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의견을 받아 조사하고, 조사자료는 재판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확실한 법적공신력을 부여하였다.

미국 등 OECD가입 선진국들은 이미 제도가 정착되어 조사전문가에 의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결정적으로 뒤바꾸게 하거나 사고원인에 영향을 주어 고액의 대행수수료는 물론 전문가로서 사회적 명성까지 한순간에 획득하여 고소득 전문직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

시행령의 발표에 따르면 「도로교

통사고감정사」의 주요 진출분야로는 도로교통사고 관련 검찰, 경찰, 법원, 군 헌병 등 공무원직업 기관이나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 일반 교통관련기업체, 시설감정사 등으로 업무영역이 매우 넓어, 매년 수 천명 이상의 수요가 예상되며 전문직은 2-5년 이내에 최소한 8,000명~40,000명 이상으로 예측됨에 따라 신규 고등직종에 대해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경찰청 주관으로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 동안 교통사고조사는 교통경찰관의 전담사항이었으나, 이번 특별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외국처럼 분방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의견을 받아 조사하고, 조사자료는 재판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확실한 법적공신력을 부여하였다.

미국 등 OECD가입 선진국들은 이미 제도가 정착되어 조사전문가에 의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결정적으로 뒤바꾸게 하거나 사고원인에 영향을 주어 고액의 대행수수료는 물론 전문가로서 사회적 명성까지 한순간에 획득하여 고소득 전문직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

시행령의 발표에 따르면 「도로교

통사고감정사」의 주요 진출분야로는 도로교통사고 관련 검찰, 경찰, 법원, 군 헌병 등 공무원직업 기관이나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 일반 교통관련기업체, 시설감정사 등으로 업무영역이 매우 넓어, 매년 수 천명 이상의 수요가 예상되며 전문직은 2-5년 이내에 최소한 8,000명~40,000명 이상으로 예측됨에 따라 신규 고등직종에 대해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경찰청 주관으로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 동안 교통사고조사는 교통경찰관의 전담사항이었으나, 이번 특별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외국처럼 분방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의견을 받아 조사하고, 조사자료는 재판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확실한 법적공신력을 부여하였다.

미국 등 OECD가입 선진국들은 이미 제도가 정착되어 조사전문가에 의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결정적으로 뒤바꾸게 하거나 사고원인에 영향을 주어 고액의 대행수수료는 물론 전문가로서 사회적 명성까지 한순간에 획득하여 고소득 전문직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

시행령의 발표에 따르면 「도로교

통사고감정사」의 주요 진출분야로는 도로교통사고 관련 검찰, 경찰, 법원, 군 헌병 등 공무원직업 기관이나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 일반 교통관련기업체, 시설감정사 등으로 업무영역이 매우 넓어, 매년 수 천명 이상의 수요가 예상되며 전문직은 2-5년 이내에 최소한 8,000명~40,000명 이상으로 예측됨에 따라 신규 고등직종에 대해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경찰청 주관으로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 동안 교통사고조사는 교통경찰관의 전담사항이었으나, 이번 특별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외국처럼 분방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의견을 받아 조사하고, 조사자료는 재판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확실한 법적공신력을 부여하였다.

미국 등 OECD가입 선진국들은 이미 제도가 정착되어 조사전문가에 의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결정적으로 뒤바꾸게 하거나 사고원인에 영향을 주어 고액의 대행수수료는 물론 전문가로서 사회적 명성까지 한순간에 획득하여 고소득 전문직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

시행령의 발표에 따르면 「도로교

통사고감정사」의 주요 진출분야로는 도로교통사고 관련 검찰, 경찰, 법원, 군 헌병 등 공무원직업 기관이나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 일반 교통관련기업체, 시설감정사 등으로 업무영역이 매우 넓어, 매년 수 천명 이상의 수요가 예상되며 전문직은 2-5년 이내에 최소한 8,000명~40,000명 이상으로 예측됨에 따라 신규 고등직종에 대해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경찰청 주관으로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 동안 교통사고조사는 교통경찰관의 전담사항이었으나, 이번 특별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외국처럼 분방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의견을 받아 조사하고, 조사자료는 재판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확실한 법적공신력을 부여하였다.

미국 등 OECD가입 선진국들은 이미 제도가 정착되어 조사전문가에 의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결정적으로 뒤바꾸게 하거나 사고원인에 영향을 주어 고액의 대행수수료는 물론 전문가로서 사회적 명성까지 한순간에 획득하여 고소득 전문직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

시행령의 발표에 따르면 「도로교

통사고감정사」의 주요 진출분야로는 도로교통사고 관련 검찰, 경찰, 법원, 군 헌병 등 공무원직업 기관이나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 일반 교통관련기업체, 시설감정사 등으로 업무영역이 매우 넓어, 매년 수 천명 이상의 수요가 예상되며 전문직은 2-5년 이내에 최소한 8,000명~40,000명 이상으로 예측됨에 따라 신규 고등직종에 대해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경찰청 주관으로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 동안 교통사고조사는 교통경찰관의 전담사항이었으나, 이번 특별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외국처럼 분방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의견을 받아 조사하고, 조사자료는 재판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확실한 법적공신력을 부여하였다.

미국 등 OECD가입 선진국들은 이미 제도가 정착되어 조사전문가에 의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결정적으로 뒤바꾸게 하거나 사고원인에 영향을 주어 고액의 대행수수료는 물론 전문가로서 사회적 명성까지 한순간에 획득하여 고소득 전문직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

시행령의 발표에 따르면 「도로교

통사고감정사」의 주요 진출분야로는 도로교통사고 관련 검찰, 경찰, 법원, 군 헌병 등 공무원직업 기관이나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 일반 교통관련기업체, 시설감정사 등으로 업무영역이 매우 넓어, 매년 수 천명 이상의 수요가 예상되며 전문직은 2-5년 이내에 최소한 8,000명~40,000명 이상으로 예측됨에 따라 신규 고등직종에 대해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경찰청 주관으로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 동안 교통사고조사는 교통경찰관의 전담사항이었으나, 이번 특별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외국처럼 분방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의견을 받아 조사하고, 조사자료는 재판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확실한 법적공신력을 부여하였다.

미국 등 OECD가입 선진국들은 이미 제도가 정착되어 조사전문가에 의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결정적으로 뒤바꾸게 하거나 사고원인에 영향을 주어 고액의 대행수수료는 물론 전문가로서 사회적 명성까지 한순간에 획득하여 고소득 전문직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

시행령의 발표에 따르면 「도로교

통사고감정사」의 주요 진출분야로는 도로교통사고 관련 검찰, 경찰, 법원, 군 헌병 등 공무원직업 기관이나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 일반 교통관련기업체, 시설감정사 등으로 업무영역이 매우 넓어, 매년 수 천명 이상의 수요가 예상되며 전문직은 2-5년 이내에 최소한 8,000명~40,000명 이상으로 예측됨에 따라 신규 고등직종에 대해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경찰청 주관으로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 동안 교통사고조사는 교통경찰관의 전담사항이었으나, 이번 특별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외국처럼 분방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의견을 받아 조사하고, 조사자료는 재판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확실한 법적공신력을 부여하였다.

미국 등 OECD가입 선진국들은 이미 제도가 정착되어 조사전문가에 의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결정적으로 뒤바꾸게 하거나 사고원인에 영향을 주어 고액의 대행수수료는 물론 전문가로서 사회적 명성까지 한순간에 획득하여 고소득 전문직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

시행령의 발표에 따르면 「도로교

통사고감정사」의 주요 진출분야로는 도로교통사고 관련 검찰, 경찰, 법원, 군 헌병 등 공무원직업 기관이나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 일반 교통관련기업체, 시설감정사 등으로 업무영역이 매우 넓어, 매년 수 천명 이상의 수요가 예상되며 전문직은 2-5년 이내에 최소한 8,000명~40,000명 이상으로 예측됨에 따라 신규 고등직종에 대해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경찰청 주관으로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 동안 교통사고조사는 교통경찰관의 전담사항이었으나, 이번 특별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외국처럼 분방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의견을 받아 조사하고, 조사자료는 재판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확실한 법적공신력을 부여하였다.

미국 등 OECD가입 선진국들은 이미 제도가 정착되어 조사전문가에 의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결정적으로 뒤바꾸게 하거나 사고원인에 영향을 주어 고액의 대행수수료는 물론 전문가로서 사회적 명성까지 한순간에 획득하여 고소득 전문직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

시행령의 발표에 따르면 「도로교

통사고감정사」의 주요 진출분야로는 도로교통사고 관련 검찰, 경찰, 법원, 군 헌병 등 공무원직업 기관이나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 일반 교통관련기업체, 시설감정사 등으로 업무영역이 매우 넓어, 매년 수 천명 이상의 수요가 예상되며 전문직은 2-5년 이내에 최소한 8,000명~40,000명 이상으로 예측됨에 따라 신규 고등직종에 대해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경찰청 주관으로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 동안 교통사고조사는 교통경찰관의 전담사항이었으나, 이번 특별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외국처럼 분방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의견을 받아 조사하고, 조사자료는 재판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확실한 법적공신력을 부여하였다.

미국 등 OECD가입 선진국들은 이미 제도가 정착되어 조사전문가에 의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결정적으로 뒤바꾸게 하거나 사고원인에 영향을 주어 고액의 대행수수료는 물론 전문가로서 사회적 명성까지 한순간에 획득하여 고소득 전문직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

시행령의 발표에 따르면 「도로교

통사고감정사」의 주요 진출분야로는 도로교통사고 관련 검찰, 경찰, 법원, 군 헌병 등 공무원직업 기관이나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 일반 교통관련기업체, 시설감정사 등으로 업무영역이 매우 넓어, 매년 수 천명 이상의 수요가 예상되며 전문직은 2-5년 이내에 최소한 8,000명~40,000명 이상으로 예측됨에 따라 신규 고등직종에 대해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경찰청 주관으로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 동안 교통사고조사는 교통경찰관의 전담사항이었으나, 이번 특별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외국처럼 분방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의견을 받아 조사하고, 조사자료는 재판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확실한 법적공신력을 부여하였다.

미국 등 OECD가입 선진국들은 이미 제도가 정착되어 조사전문가에 의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결정적으로 뒤바꾸게 하거나 사고원인에 영향을 주어 고액의 대행수수료는 물론 전문가로서 사회적 명성까지 한순간에 획득하여 고소득 전문직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

시행령의 발표에 따르면 「도로교

통사고감정사」의 주요 진출분야로는 도로교통사고 관련 검찰, 경찰, 법원, 군 헌병 등 공무원직업 기관이나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 일반 교통관련기업체, 시설감정사 등으로 업무영역이 매우 넓어, 매년 수 천명 이상의 수요가 예상되며 전문직은 2-5년 이내에 최소한 8,000명~40,000명 이상으로 예측됨에 따라 신규 고등직종에 대해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경찰청 주관으로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 동안 교통사고조사는 교통경찰관의 전담사항이었으나, 이번 특별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외국처럼 분방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의견을 받아 조사하고, 조사자료는 재판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확실한 법적공신력을 부여하였다.

미국 등 OECD가입 선진국들은 이미 제도가 정착되어 조사전문가에 의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결정적으로 뒤바꾸게 하거나 사고원인에 영향을 주어 고액의 대행수수료는 물론 전문가로서 사회적 명성까지 한순간에 획득하여 고소득 전문직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

시행령의 발표에 따르면 「도로교

통사고감정사」의 주요 진출분야로는 도로교통사고 관련 검찰, 경찰, 법원, 군 헌병 등 공무원직업 기관이나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 일반 교통관련기업체, 시설감정사 등으로 업무영역이 매우 넓어, 매년 수 천명 이상의 수요가 예상되며 전문직은 2-5년 이내에 최소한 8,000명~40,000명 이상으로 예측됨에 따라 신규 고등직종에 대해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경찰청 주관으로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 동안 교통사고조사는 교통경찰관의 전담사항이었으나, 이번 특별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외국처럼 분방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의견을 받아 조사하고, 조사자료는 재판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확실한 법적공신력을 부여하였다.

미국 등 OECD가입 선진국들은 이미 제도가 정착되어 조사전문가에 의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결정적으로 뒤바꾸게 하거나 사고원인에 영향을 주어 고액의 대행수수료는 물론 전문가로서 사회적 명성까지 한순간에 획득하여 고소득 전문직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

시행령의 발표에 따르면 「도로교

통사고감정사」의 주요 진출분야로는 도로교통사고 관련 검찰, 경찰, 법원, 군 헌병 등 공무원직업 기관이나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 일반 교통관련기업체, 시설감정사 등으로 업무영역이 매우 넓어, 매년 수 천명 이상의 수요가 예상되며 전문직은 2-5년 이내에 최소한 8,000명~40,000명 이상으로 예측됨에 따라 신규 고등직종에 대해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경찰청 주관으로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 동안 교통사고조사는 교통경찰관의 전담사항이었으나, 이번 특별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외국처럼 분방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의견을 받아 조사하고, 조사자료는 재판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확실한 법적공신력을 부여하였다.

미국 등 OECD가입 선진국들은 이미 제도가 정착되어 조사전문가에 의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결정적으로 뒤바꾸게 하거나 사고원인에 영향을 주어 고액의 대행수수료는 물론 전문가로서 사회적 명성까지 한순간에 획득하여 고소득 전문직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

시행령의 발표에 따르면 「도로교

통사고감정사」의 주요 진출분야로는 도로교통사고 관련 검찰, 경찰, 법